

대학생의 집단주의·개인주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의 관계

김 민 경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치체계인 집단주의·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권에 있는 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사회적응은 신선인(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KGHQ) 중 사회적응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족탄력성은 유영주(2004)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중에서 가족탄력성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집단주의·개인주의는 Triandis(1994)가 개발하고 김의철(1997)이 번안한 척도를,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응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가 높은 경우 개인주의도 높게 나타나고, 가족탄력성도 높고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집단주의·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는 사회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관계에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집단주의·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는 사회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관계에 집단주의와 사회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의 사회적응에 가족탄력성보다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주요어 : 집단주의,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응, 대학생

1)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mkm35@nsu.ac.kr)

I. 서론

인간은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고 적응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우울, 불안, 부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중심에 서있는 존재가 바로 대학생으로서 이들은 학생신분이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전과 과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성취하거나 심리적 부담과 갈등으로 정신적 건강을 위협받거나 충동적인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회부적응적 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적응의 양상은 대학생자신의 진로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나아가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의 적응적 삶을 지배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성공적인 대인관계 및 적응도와 관련된 심리적 요소로 개인이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여기는가 즉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여기고 개인의 필요나 목표를 타인 혹은 집단의 목표보다 중요시한다. 반면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과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고 집단의 만족을 위해서 개인적 요구를 희생한다.

한국문화는 집단주의 성향을 띠며 개인주의 성향이 적게 나타나는 사회이다(Hofstede, 1991). Hofstede(1980)는 북미와 유럽지역은 개인주의 특성이 강한 문화권이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집단주의 특성이 강한 지역이다

라고 하였다. 개인주의 사회는 ‘나’의식, 자율, 독립, 사생활에 대한 권리, 계약적 관계, 보편주의 등을 강조하는 반면 집단주의 사회는 ‘우리’의식, 안정적이고 확고한 우정, 대인간의 정서적 유대, 집단의 결정, 특수주의를 강조한다(Hofstede, 1980; Sinha & Verma, 1987).

이러한 특성은 가족탄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적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어(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2000; 유영주, 2004), 가족기능인식도나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점차 근대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고려하면(양옥경, 2001) 가족가치관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사회적응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가족특성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청소년과 가족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곧 가정의 건강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없는 청소년들은 가족건강성 요소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였으며(손민경, 2005), 가족원간의 감사와 애정, 존중,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임정아, 이인수, 2006). 또한 가족탄력성은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특히 부모의 애정과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신뢰관계가 발전하여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고(Springer, Wright, & McCall, 1997), 가족유대가 낮을수록 낮은 학교적응을 보임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을 보고했다(김형수, 조우홍, 200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학생이 적응하는데 있어 건강한 가족관계 강화와 개인의 탄력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개인주의 성향도 사회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데 대학생이 성인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보다 성인이 집단주의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상관은 대학생인 경우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상관이 높았고 성인인 경우 역시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높았다(구재선, 2005). 또한 한정연(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독립적 자기관보다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으며 한국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특성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밝혔다. 조미랑(2004)은 대학생의 독립적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고독립-고협조, 고독립-저협조, 저독립-고협조, 저독립-저협조의 네집단을 구성하여 이들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고독립-고협조 자기관 집단이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고 저독립-저협조 자기관 집단은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어린 시절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임병희, 1996; Nathaniel, 1994)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가정의 환경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일차적인 사회의 장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및 습관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성격이 형성되어가며 지적,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자아존중감과도 높은 상관을 보이며(임병희, 1996), 자아탄력성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 환경의 영향(Nathaniel, 1994)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가족은 인간의 사회화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성특성 및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성원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생의 경우 출생가족에서의 경험이 자신이 형상하게 될 미래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출생가족의 건강성 및 이것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검토함으로써 대학생의 사회적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사회적응은 문화나 가치체계, 가족과 개인의 특성으로부터 복합적인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가족원의 역할과 역량과 개인의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주고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 또한 사회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응의 부정적 결과가 개인과 가족,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응의 중요성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이들 관계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 개인, 가족, 사회문화의 속성이 대학생의 사회적 삶에 영향을 준다는 통합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대학생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대학생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등으로 설정하였다.

II. 선행연구고찰

1. 가치체계(집단주의·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

가치체계와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집단·개인주의와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를 유사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들로 가족기능인식도도 가족건강성과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수선(2006)에 따르면 가족성원 및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요구도가 가족건강성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족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경의, 김은하, 2007). 송경희(2004)도 부모에 대한 만족, 부양 및 효의식, 성역할관, 자녀관, 결혼관 등이 가족의 건강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희(2010)의 연구에서 부계혈통에 대한 영속성이 낮을수록 가족우선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인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높을수록 기능적 가족개념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선미(2011)의 연구에서도 20-30대에 가족기능인식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가족체계는 개별가족원의 가치관 및 노력여하, 그 가족이 속한 확대 친족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Olson & DeFrain, 2003). 개인주의자들에게는 경쟁이나 개성이 강조되고 집단주의자들에게는 희생, 양보, 협동 등과 같은 상호의존성이 강조된다(Kim, Triandis, Kagitcibasi, Choi, & Yoon, 1994;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Jucca, 1988). 구재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집단주의는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이들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특성이 그 자체로 부정적 기능을 하지 않으며 적당한 수준의 상호의존적 성향은 집단주의 문화적응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 성향이 부족할 경우 미성숙하고 이기적으로 인식되어

대인관계의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이주한 아시아인들의 연구(Cross, 1995)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성향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잘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였다.

2.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

가족탄력성은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족은 유대와 부모와의 돌봄 관계를 통한 밀접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 인생목표와 긍정적 기대의 개발, 의사결정과 적극적 선택, 의미있는 가족몰입을 통한 협동과 소속의 발달 및 응집력있고 지지적인 가족환경의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기여한다(조계연, 이은희, 2007; Kumper & Alvarado, 1995; Springer et al., 1997). 가족의 탄력성수준이 높으며 가족구성원들이 가치관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경우 가족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와의 유대가 잘 이루어진다고 자각할 때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서하진, 김정옥, 2009).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는 청소년기의 11-18세의 장애인 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병석(2005)은 장애인으로 인하여 장애인 형제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변인과 가족탄력성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탄력성

은 자폐성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는 조절변수임이 확인되었다(이주희, 정현주, 2009; 정현주, 2008). 권지은(2003)은 초, 중,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더 적극성을 띠며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를 연구한 김민정(2005)은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서 및 행동문제에 있어 더욱 적응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O'Connell-Higgins(1983)는 탄력적인 아동들이 삶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적인 접근성,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려는 능력, 유아기부터 계속적으로 타인의 긍정적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이나 삶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탄력성 중 역할안정성, 개방적 감정표현, 상호협력 문제해결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김태현, 2011). 이외에도 가족탄력성과 유사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김경은, 최은희, 2010; 김혜래, 최승희, 2009), 문제해결능력(박민주, 황기아, 2007; 학교생활만족도(김옥선 등, 2005)에도 긍정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 모두에게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은, 최은희, 2010). 조계연과 이은희

(2007)는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와 한연민(2010)은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문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김미록(2006)은 가족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및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이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자각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한 바 있다.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며(송영경, 2006), 학교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 및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예승, 2004).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족관계안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촉진하여 동일한 학교생활스트레스상황에서도 자기를 조절하여(Block & Kremen, 1996)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는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송영경, 2006). 또한 초등학생이 인지한 자아탄력성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규칙 준수, 학교행사의 전체하위영역, 학교생활만족

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시기의 자아탄력성도 사회의 중요한 영역인 학교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김옥선 등, 2005).

이상과 같이 집단주의,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집단·개인주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각 대학의 전공과 학년에 무관하게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조사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상은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대학에서 남녀대 학생 각각 30명 씩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11년 5월 11일에서 6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N	%
성별	남	133	45.1	경제 수준	상류층	44	15.6
	여	162	54.9		중류층	185	62.7
					하류층	64	21.7
종교	기독교	113	38.3	연령	20세 이하	169	57.3
	천주교	24	8.1		21-24세	116	39.3
	불교	24	8.1		25세 이상	10	3.4
	기타	7	2.4				
	종교없음	127	43.1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대학생 29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45.1%, 여학생이 54.9%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류층 21.70%, 상류층 15.6%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38.3%로 가장 많고 종교없음도 43.1%로 나타났다. 연령은 대학생인 관계로 24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와 이들을 대상으로 문항내용의 이해도와 적절성을 평가한 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상황과 잘 맞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거나 제외하였으며 청소년전공 교수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사회적응

사회적응은 신선인(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KGHQ) 중 사회적응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등 총 9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732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유영주(2004)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중에서 가족탄력성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서하진과 김정옥(2009)의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활용하여 Cronbach's α 값은 .914로 타당도를 검증받은 바 있다. 문항내용은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가족은 어려움이 닥치더라

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족은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14로 나타났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학생의 집단·개인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Triandis(1994)가 개발한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척도를 김의철(1997)이 번안하고, 구재선(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12개의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두차원만을 측정하였는데 개인주의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등이며 집단주의는 '내가 속한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다', '친구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등이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개인주의는 .750이며 집단주의는 .800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를 유성경, 홍세희와 최보윤(2004)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하고 김민정(2005)이 문항을 재구성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낙관성, 호기심,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호기심은 새로운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흥미로움을, 대인관계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이다. 점수 평균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899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대학생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의 관계와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와 사회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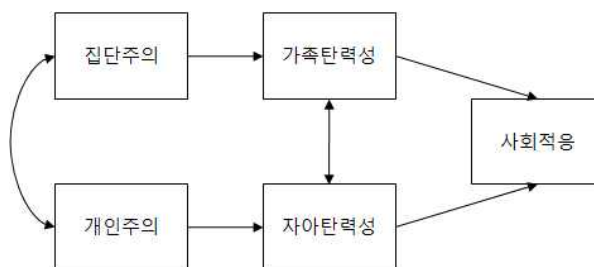


그림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의 관계

4. 자료분석

대학생의 집단주의·개인주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와 사회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수들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r=.627, p<.001$), 가족탄력성($r=.567, p<.001$), 자아탄력성($r=.378, p<.001$), 사회적응($r=.450, p<.001$)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가 높은 경우 개인주의도 높게 나타나고,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응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높게 나타나 집단주의는 가족과 사회속에서 중요한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도 가족탄력성($r=.433, p<.001$), 자아탄력성($r=.383, p<.001$), 사회적응($r=.399, p<.001$)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여 개인주의가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고, 자아탄력성도 높으며 사회적응도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은 자아탄력성($r=.379, p<.001$)과 사회적응($r=.497, p<.001$)과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고 사회적응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r=.656, p<.001$)간에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대학생의 사회적응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2. 집단주의·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표 3과 같다. 가족탄력성의 사회적응에 대한 매개효

표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집단주의	1.000				
2. 개인주의	.627***	1.000			
3. 가족탄력성	.567***	.433***	1.000		
4. 자아탄력성	.378***	.383***	.379***	1.000	
5. 사회적응	.450***	.399***	.497***	.656***	1.000

*** $p<.001$

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식에서 감소하거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다 (Bennett, 2000).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김현순, 김병석, 2007). 이러한 근거에 따라 첫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집단주

의, 개인주의와 가족탄력성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결과 표 3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집단주의($\beta=.487, p<.001$), 개인주의($\beta=.127, p<.05$)가 매개변인인 가족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집단주의($\beta=.329, p<.001$), 개인주의($\beta=.192, p<.01$)가 종속변인인 사회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가족탄력성($\beta=.339, p<.001$)과 독립변인인 집단주의($\beta=.164, p<.05$), 개인주의($\beta=.149, p<.05$)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탄력성은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사회적응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가족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탄력성이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사회적응사이에 매개하여 사회적응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표 3. 집단주의,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β	R^2	F
1단계	집단주의	.487***	.331	72.234***
	개인주의	.127*		
2단계	집단주의	.329***	.225	42.274***
	개인주의	.192**		
3단계	집단주의	.164*	.302	41.876***
	개인주의	.149*		
	가족탄력성	.339***		

* $p<.05$ ** $p<.01$ *** $p<.001$

표 4. 집단주의,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β	R^2	F
1단계	집단주의	.233**	.194	35.063***
	→ 자아탄력성	.255***		
2단계	집단주의	.329***	.225	42.274***
	→ 사회적응	.192**		
3단계	집단주의	.171**	.595	142.269***
	개인주의	.020		
	→ 사회적응 자아탄력성	.677***		

* $p < .05$ ** $p < .01$ *** $p < .001$

3. 집단주의·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자아탄력성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결과 표 3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집단주의($\beta=.233, p<.01$), 개인주의($\beta=.255, p<.001$)가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집단주의($\beta=.329, p<.001$), 개인주의($\beta=.192, p<.01$)가 종속변인인 사회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beta=.677, p<.001$)과 독립변인인 집단주

의($\beta=.171, p<.01$)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아탄력성은 집단주의와 사회적응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집단주의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탄력성이 집단주의와 사회적응사이에 매개하여 사회적응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집단주의·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집단주의·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권에 있는 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주의·개인주의는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집단주의는 개인주의보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응에 더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성향이 가족과 사회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응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탄력성은 사회적응과 가장 높은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내 사회적응에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주의·개인주의는 가족,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으며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잘 발휘될 때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응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집단주의·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집단주의가 가족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많은 선행연구들(김진희, 2010; 박수선, 2006; 배경의, 김은하, 2007; 송경희, 2004; 이선미, 2011)에 따르면 가족기능도가 높을수록, 가족 우선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인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가족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가족유대와 친밀감, 문제해결능력 등의 특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전통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점차 근대주의적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양옥경, 2001)고 하더라도 가족안에서 가족을 우선시할 때 가족탄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가족탄력성을 위해서는 타인과 상호의존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가족내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개인을 떠나 집단에서의 개인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도 가족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가 독립과 자율을 강조하는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주의의 특성이 보장될 때 가족탄력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이 독립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가 통제된다면 가족탄력성에도 부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집단주의·개인주의는 가족탄력성을 통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생 자신의 가치체계는 편안하고 유대감있는 가족 특성 요인을 통해 문제해결과 대처능력, 자존감 등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양을 얻는다고 하겠다. 즉 가족간 유대가 좋고 가족안에서 협조적 관계형성과 가족과의 성공적 경험은 사회적응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리라 여겨진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이주희, 정현주, 2009; 정현주, 2008), 문제해결방식이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적응적이라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 결과들(권지은, 2003; 김민정, 2005; 박지현, 김태현, 2011)과 일치되고 있다.

셋째, 집단주의·개인주의가 사회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가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우리'라는 의식과 안정과 대인간의 안정적 유대관계를 지향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이 토대가 될 때 자아탄력성도 발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주의도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는 성향이 자아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은 집단주의와 사회적응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이다(송영경, 2006)라는 연구결과를 볼 때 자아탄력성이 전제된다면 사회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사회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문제에 대해 유연하고 기능적으로 대처하고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전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Klohn, 1996).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할 위험성이 높은 학교적응실패, 물질남용, 정신건강, 비행 등에 굴복하지 않은 자질은 바로 자아탄력성이며 보호적 요인으로 보았다. 즉 탄력성은 고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적 기제이다(Benard, 1991)라고 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자

사회적응에 장애요소가 되는 내용에 대해 이를 보호해주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적응을 위한 개발프로그램이나 사회문제예방 및 개입을 위해 먼저 자아탄력성의 향상과 개발을 촉진하여 대학생의 미래생활에 대한 활력과 동인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되어야 하겠다.

개인주의성향은 사회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집단주의 성향이 부족한 경우 미성숙하고 이기적으로 인식되어 대인관계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구재선과 김의철(2006)의 결과와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개인의 목표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집단을 위한 희생, 양보, 협동 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젊은이들이 개인주의성향이 강하다는 매스컴의 보도와 달리 독도에 대한 우리영토권 주장, 반값등록금 쟁취, 각종 사회이슈에 대한 대다수의 참여 등 단합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는 집단주의 성향의 모습이 본 결과를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응에 집단주의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이 각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회적응에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양극단에 위치하는 개념보다 직교하는 이차원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한 Singelis(1994)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적응향상을 위해 개인이 타인과 결합되어 있고, 의미있는 사회적 관계에 소속하여 그 속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위치를 차지하고 타인과 상호의존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응에 있어 집단주의, 개인주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 등 개인, 가족, 문화적 특성까지를 포함하여 개인의 사회적응에 생태체계적 입장을 검증하였으며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사회적응의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들 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사회적응을 위한 개인과 가족, 사회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적 지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기존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사회적응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족환경뿐만 아니라 성적, 취업, 등록금 문제 등 학교환경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반화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 도구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다른 국가의 대학생과 비교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구재선, 김의철 (2006). 심리적 특징, 생활경험, 행복과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경은, 최은희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김미록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및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의철 (1997). 한국청소년문화: 연구모형.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편),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pp.11-30).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진희 (2010). 남녀대학생의 가족개념, 가족주의기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499-510.
- 김현순, 김병석 (2007).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7(1), 23-37.
- 김형수, 조우홍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 23, 61-90.
- 김혜래, 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0(1), 160-182.

- 박민주, 황기아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43-51.
- 박수선 (2006).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 및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지현, 김태현 (2011).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229-257.
- 배경의, 김은하 (200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가족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3), 357-366.
- 서병석 (2005).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서하진,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손민경 (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행동체계가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경희 (2004).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영경 (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 (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 양옥경 (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18.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119-151.
- 이선미 (2011). 성인남녀의 가족건강성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9(5), 129-142.
- 이소영 (2007).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예승 (2004).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주희, 정현주 (2009).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0(4), 15-31.
- 임병희 (1996). 가정환경이 자아개념과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정아, 이인수 (2006).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아동교육, 15(2), 37-62.
- 정현주 (2008). 자폐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이 자폐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 경로분석-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3(3), 89-110.
- 조계연, 이은희 (2007). 초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조미량 (2004). 외향성 수준과 문화적 자기관 유형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연민 (201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정연 (2008). 대학생의 문화적 자기관 유형과 자기통제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9-92.
- Benard, B. (1991). *Fostering resilience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community*. <http://www.nwrc.org/pub/library/f/foster.pdf>.
- Bennett, J. A. (2000).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Research Nursing Health*, 23, 1173-1182.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ross, S. E. (1995). Self-constraints, coping and stress-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673-697.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Book.
- Kim, U., Triandis, H. C., Kagitcibasi, C., Choi, S. C., & Yoon, G.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umper, K. L., & Alvarado, R. (1995). *Strengthening Families to prevent Drug Use in Multicultural Use*. University of Utah, Health Education Department.
- Nathaniel, B. (1994). 나를 존중하는 삶: 삶의 활력: 자존감. 강승규(역). 학지사. (원본발간일, 1975)
- O'Connell-Higgins, R. (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New York: McGrawHill.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ha, J. B. P., & Verma, J. (1987). Structure of collectivism. In C. Kagitcibasi (Ed.). *Growth and progres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Lisse:

- Swets & Zeitlinger.
 - Springer, J. F., Wright, L. S., & McCall, G. J. (1997). Family interventions and adolescent resiliency: The southwest Texas state high-risk youth program.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3), 435-452.
 - Triandis, H. C. (1994).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Sage.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J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 in 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1차원고접수 : 2011. 12. 31
수정원고접수 : 2012. 2. 15
최종게재결정 : 2012. 2. 29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Individualism, Family Resilience, Ego Resilience and Social Adaptation in University Students

Kim, Min Kyeo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cover the relationships and correlations between collectivism-individualism, family resilience, ego resilience and social adaptation. The subjects were 295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The instruments used Shin(2001)'s depression and social adaptation of general mental health scale, Triandis(1994)'s collectivism-individualism index, Yu(2004)'s Family resilience of Family Health Scale and Block & Kremen(1996)'s Ego resilience scal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resilience, ego resilience and social adaptation. Additionally, family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 and social adaptation. Ego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adaptation. All the variable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university students' gender and family resilience and ego resilienc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university students' family economic status. Second,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had a positive influence upon family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upon collectivism-individualism and social adaptation. Third,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fluenced ego resilience positively. Ego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collectivism and social adaptation. Therefore, educational programs and counseling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levels of social adaptation, family resilience, and ego resilience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Collectivism, Individualism, Family resilience, Ego resilience, Social Adaptation, University Student